

조세회피 ‘파나마 페이퍼스’ 한국인 232명 포함

국제탐사보도협회 추가 폭로

현대상사·가스공 등 90개 법인

영국 여왕·트럼프 측근도 가담

지난해 4월 사상 최대 규모의 역외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했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올해 다시 대규모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월버 로스 상무장관과 대선 당시 트럼프에 고액을 후원한 기업가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수석 정치자금모금액 등 각국 정상과 정치인 120여명,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과 다국적 기업 등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ICIJ는 5일(현지시간)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의 1950~2016년 기록을 담은 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파일 용량이 1.4 테라바이트(TB), 문서 1340만건 규모에 이르고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를 입수했던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이번에도 자료를 입수해 ICIJ와 공동으로 분석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로 명명된 ICIJ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가디언, BBC방송 등 세계 67개국 언론사 96개



사 소속 언론인 382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참여했다.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어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도 각국 정치인과 유명인, 다국적 기업 등이 대거 등장했다.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사유 재산 1000만 파운드(약 145억원)를 역외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WL 로스 그룹”을 통해 조세회피처인 마

셜제도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 ‘내비게이터’를 인수했다. 로스는 이 회사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설립자 폴 싱어,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헤지펀드 투자자 로버트 머서 등도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트럼프의 사

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의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측근이자 그의 정치자금 모금액인 스티븐 브론프맨은 케이맨제도에서 조세회피용 펀드를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나 애플도 조세회피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탈세에 가담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러시아 국영 금융기관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6개월여간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서 내부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 여권번호, 국적 등을 통해 한국인 232명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조세회피처 설립 서류에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은 197명이었고 한국인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은 90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코스닥 상장기업 등 증권업체부터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대기업 등도 포함됐다.

이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지별로 보면 지중해 몰타에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버뮤다에 18곳, 케이맨제도와 세이셸에 각각 7곳씩 설립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현대상사는 2006년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자사가 보유한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이후 현대상사는 이 페이퍼컴퍼니의 지분 48%를 한국가스공사에 넘기는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문무를 겸비한 누사덕

누사덕(樓師德, 630~699)은 정주 원무 출신으로 자는 종인이다. 당 고종과 측천왕제 때 활약했고 오랜기간 변방 요충지에서 근무해 큰 공을 세웠다.

당 태종때 진사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나갔다. 고종 초기에 감찰어사가 되었다. 고종 의봉 3년(678년) 이경현이 18만 군사를 이끌고 토번 정벌에 나섰다. 그는 군사 모집에 응해 종군했다. 이경현이 싸움에 패해 군사들이 뿔뿔히 흩어지자 그가 다시 그들을 모아 전력을 유지했다. 토번에 사자로가 토번 장군 논찬파를 청해성 공화현에서 만나 황제의 뜻을 전달하였다. 싸움의 득실을 설명해 수년간 토번이 국경을 침략하는 일을 방지했다. 이

러는 것이고, 네가 그것을 깨닫기 하면, 마침내 그를 화나게 할 것이다. 무릇 침을 뱉으면 깨끗하게 닦지 말고 자연스럽게 마르게 해라” 그 유명한 타면자전(唾面自乾)의 고사다.

697년에는 수봉각시랑, 동평장사가 되었고 5월 청변도부대총관이 되어 우무위위 장군 사차총의를 선봉장으로 삼아 20만을 거느리고 거란을 공격하라는 명을 받았다. 결국 거란이 처음 평정되어 하북지방이 평안해졌다. 서쪽으로는 토번과 동쪽으로는 거란과 싸우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했다. 699년 농우제군대사가 되어 토번에서 항복한 사람들을 위무하고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는 사람보는 눈이 뛰어나 인재를 적극 추천했다. 국로로 존경받은 적인 겐을 측천이 재상으로 발탁한 것도 그

‘타면자전’ 인내심으로 공적 쌓아

공으로 전공어사로 승진하고 하원군사마, 둔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영전사를 겸하게 되었다. 682년 토번이 청해성 하원군을 공격하자 대통령에서 토번군을 격파했다. 여덟 번 싸워서 여덟 번 승리했다. 고종은 그를 비부원외랑 좌교우낭장 하원군경략부사로 삼으면서 말하기를 “경은 문과 무를 두루 갖춘 재목이니 사양하지 말라.”

측천이 690년 무주 왕조를 세웠다. 병부시랑 누사덕이 재상적인 동평장사가 되었다. 그는 관대하고 후덕하며 청렴하고 신중했다. 너그러운 성품으로 조정의 신망을 받았다. 동료 이소덕이 같이 황제를 빙는데 그가 체격이 크고 걸음걸이가 느려 일찍 도착하지 않자 화를 내며 촛뜨기라고 욕하였다. 그는 웃으면서 “나를 촛뜨기로 삼지 못하면 누구를 그것으로 삼겠소?”라고 답하였다. 동생이 대주 자사에 임명되 부임하려 하자 충고하기를 “내가 재상인데, 네가 다시 자사가 되면 영광스러운 은총이 지나치게 커 사람들이 반드시 시기할 것이니 장차 어떻게 스스로 화를 면할 것인가.” 동생이 무를 꿇고 말하기를 “지금부터 누가 저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하여도 저는 그것을 닦아서 깨끗이 할 뿐 형님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슬픈 표정으로 말하였다. “이것이 내가 걱정하는 이유다. 다른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어서 너를 분노하게 하

의 천거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적인 겐은 재상이 된 후 누사덕을 자못 낮게 평가해 여러번 외지로 내쳤다. 측천이 이를 알고 적인겐에게 물었다. “누사덕은 어진가?” “장군이 되어 변방을 엄하게 지킬 수는 있지만 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사덕은 사람을 볼 줄 아는가?”고 재차 묻자 “신을 일찍이 동료였지만 그가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짐이 경을 알게 된 것은 그의 추천이니 역시 사람을 볼 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적인겐이 “누공의 훌륭한 품덕으로 나는 그에게 포용된 바가 오래 되었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으니 나는 한참 모자란다”고 탄식했다고 한다.

699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변경인 감속성과 청해성에서 약 40년동안 삼가고 부지런히 힘써 한족과 이민족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다. 그의 최대 장점은 “인내심”이었다. “변번지 못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인내하고 꾸준히 변경 업무에 종사했다. 이해득실을 떠나 좋은 인재를 천거했다. 측천 제위시 많은 사람들이 정쟁에 얽혀 목숨을 잃거나 수모를 당했다. 그는 오랫동안 장군과 재상이 되어 공적과 명성을 유지했다. 사람들이 이 때문에 그를 중히 여겼다.



美 텍사스 교회 총기난사...희생자 26명 추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 인근에서 5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미국 방송들은 이날 예배 도중 교회내 교회로 난입해 안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을 마구 쏘으며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 인근에서 5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미국 방송들은 이날 예배 도중 교회내 교회로 난입해 안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을 마구 쏘으며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무안한 일본의 손님대접

트럼프 무역적자 작심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극진한 대접에도 무역적자를 포함한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작심 발언으로 일본을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에 치우친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전 일본과의 무역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통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를 직접 공격했다. 그는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의 차 판매가 저조하다” 등의 말로 비판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의 식성까지 고려해 점심·저녁 식사 메뉴까지도 세심히 배려하고 골프 라운딩을 마련하며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극진한 대접) 문화를 보여줬던 일본과의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부은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트럼프 대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해 과하다는 비판론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 - 203평 147-4, 11, 15번지 - 31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장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

“무 인 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 “타 물건과 교환가능”